

2006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1교시 언어 영역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	2	7	5	8	3	9	4	10	5	11	3	12	4	13	4	14	1	15	1	16	5	17	1	18	2	19	5	20	1	21	5	22	4	23	5	24	5	25	4	26	5	27	2	28	1	29	2	30	1	31	5	32	2	33	2	34	4	35	2	36	5	37	1	38	5	39	3	40	4	41	1	42	2	43	2	44	4	45	4	46	3	47	1	48	3	49	5	50	3	51	5	52	3	53	3	54	2	55	3	56	4	57	3	58	3	59	1	60	3

해설

[1] 이제 수업의 일부를 돌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잘 짜인 논리적인 흐름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알고리즘이 어떤 것인지 숫자가 적힌 공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예를 통해 알아봅시다.

위쪽의 그림을 보면 1에서 5까지의 숫자가 적힌 공이 순서 없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림 공들을 숫자 순서대로 정렬해 봅시다. 단, 공을 움직일 때에는 두 개의 공을 맞바꾸는 방법만을 써야 하며, 맞바꾸는 횟수를 최소로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한번 해 볼까요? 우선 1번 공과 5번 공을 맞바꿉니다. 다음에 2번과 3번을 바꾸고, 3번과 5번을 바꾼 뒤, 4번과 5번을 바꾸면 크기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이 문제를 푼 알고리즘을 생각해 봅시다. 1번 공이 첫째 자리에 있지 않으면, 1번 공과 첫째 자리의 공을 맞바꿉니다. 마찬가지로 2번 공이 둘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둘째 자리의 공과 2번 공을 맞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3번, 4번 공까지 제자리를 찾아주면 5번 공은 자동적으로 정렬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알고리즘에 따라 아래쪽에 있는 6에서 10까지의 숫자가 적힌 공들을 순서대로 정렬해 봅시다.

1.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의 적용

이 수업에서 설명된 알고리즘에 따라 공의 순서를 정렬하려면 먼저 6번 공이 첫째 자리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6번 공이 첫째 자리에 있지 않으므로, 첫째 자리에 있는 7번 공과 6번 공을 맞바꾸어야 한다. 그러면 그 결과는 '6-8-10-7-9'의 순서가 된다. 이 상태에서 볼 때 7번 공이 둘째 자리에 있지 않으므로, 둘째 자리에 있는 8번 공과 7번 공을 맞바꾸는 것이 둘째 번에 해야 할 일이 될 것이다.

[2] 이번에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의 일부를 돌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시그널 음악>

생산적 책 읽기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책을 읽는 목적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책 읽기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찰스 헨디는 자신의 유명한 책 <헝그리 정신>에서 인간의 세 가지 심리적 유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계유지형, 외부지향형, 내부지향형이 그것입니다. 생계유지형은 금전적 욕구의 충족과 사회적 안정을 제일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며, 외부지향형은 성공의 외적 상징인 존경과 지위의 획득을 제일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내부지향형은 개인적인 성숙과 자아의 실현에 높은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메슬로우가 말한 생존 욕구나 안전 욕구는 생계유지형과 관련이 있고, 사회적 욕구나 존경 욕구는 외부지향형과, 자아실현 욕구는 내부지향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유형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또는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 책을 읽는다면 이 사람은 생계유지형에 해당합니다. 사회적인 성공과 자기 발전, 주변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서들을 읽는 사람이라면 외부지향형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내부지향형의 사람들은 자아실현에 도움을 주거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가치관이 담겨 있는 책들을 즐겨 읽습니다.

2.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장사는 목이고, 목은 돈이다'는 금전적 욕구 충족과 관련된 책이며, '사람이 따르는 말, 사람이 떠나는 말'은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책이고, '깨어있는 삶으로의 안내'는 바람직한 가치관과 관련된 책이다.

[3] 이번에는 두 학생의 대화를 돌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 : 소연아, 너 '테라사 효과'란 말 들어 본 적 있니?

여 : 테라사 효과? 테라사라면, 평생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돌아가신 수녀님인데, 그 수녀님하고 관계가 있는 말이지?

남 : 응, 맞아. 몇 해 전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이 자신들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한 말인데, 테라사 수녀의 봉사활동하고 관계가 있어.

여 : 무슨 관계가 있는데?

남 : 들어 봐. 하버드 의대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했는데, 한 그룹의 학생들은 돈을 받는 노동을 하게 하고 다른 그룹의 학생들은 아무런 대가가 없는 봉사활동을 하게 했어. 그런 다음 두 그룹의 면역 기능을 비교해 봤더니, 돈을 받고 일한 학생들에 비해 무료 봉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면역 기능이 크게 높아졌더라.

여 : 좋은 일을 하면 면역 기능이 높아진다는 거야?

남 : 그렇지. 그 다음날 실험에서는 봉사활동을 하는 대신에 테라사 수녀의 다큐멘터리를 보여 주기도 했는데도 학생들의 면역 기능이 향상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어. 자기가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남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면역 기능이 높아진다는 거지.

여 : 그걸 참 마음에 새겨둘 만한 얘기구나. 착한 마음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저항력이 강해진다니 말이야.

3. [출제의도] 정보 적용의 적절성 판단

공익 광고의 문구는 봉사활동을 권장하되 그러한 활동과 면역 기능의 향상을 연결 짓는 내용이어야 한다. ㉔의 문구는 봉사활동이 그것을 하는 사람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테라사 효과'를 잘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이번에는 교양 강좌의 일부를 돌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람들은 어떤 숫자는 좋아하지만 어떤 숫자는 일부러 피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관습적으로 숫자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경우, 이러한 숫자 관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 음양오행 사상입니다.

먼저 숫자 1과 2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지요? 1은 하나의 수량을 말하지만 동시에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는 실체를 나타내는 수입니다. 음양의 이치에서 보면, 1은 아무 수와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양의 수이고 최초의 수이므로 1에는 모든 사물이 생겨나는 근원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는 하나가 아닌 최초의 단위이자 최초의 음의 수로서 음과 양, 하늘과 땅, 남과 여 등에서 보는 것처럼 둘이 짝하여 하나가 된다는 대립과 화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은 어떨까요? 3은 양의 수의 시작인 1과 음의 수의 시작인 2가 결합하여 생겨난 수입니다. 즉, 음양의 조화가 비로소 완벽하게 이루어진 수가 3입니다. 그래서 3은 2처럼 둘로 갈라지지 않을 뿐 아니라

양의 수인 1의 신성함을 파괴하지 않은 채 결합되어 있다는 뜻에서 안정과 조화를 상징합니다.

다음으로 4에는 나 또는 우리를 중심으로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네 가지 요소를 배열함으로써 비로소 중심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주팔자라 할 때의 사주(四柱)는 태어난 연월일시를 말하는데, 이 사주가 나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네 개의 기둥이기에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듯이 숫자 4는 중심을 둘러싸고 중앙을 지켜줄 수 있는 전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에 대해 말씀드리죠. 우리나라에서는 5를 모든 것을 갖춘 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 5는 음양오행의 원리가 모두 갖추어진 완전한 수인 것입니다. 동서남북에 중앙을 보함으로써 비로소 오행이 갖추어진 전체로서의 완전함을 뜻합니다. 이처럼 5는 오행사상의 원리에 따라 모든 것이 이치에 맞는 완전함을 뜻함으로써 서양에서는 볼 수 없는 동양 특유의 수관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4. [출제의도] 세부 정보의 확인

4는 중심을 둘러싸고 중앙을 지켜주는 전체의 의미를 상징한다. 따라서 4가 사물의 중심이나 기초를 상징한다고 메토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5-6] 이번에는 좌담회의 일부를 돌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여) : 오늘은 두 분의 교수님을 모시고 과거의 역사적 과오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총리의 신사 참배가 수시로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기도 하고,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청산, 역사 바로 세우기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적이 있기도 합니다. 흔히 법률에는 공소 시효가 있지만 역사의 심판에는 공소 시효가 없다고들 하는데, 이러한 역사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은 현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잘못된 역사를 심판하고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을 처벌할 때, 그 사회, 더 나아가 인류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남 : 역사적 심판이 아니라서 이루어져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제도 역사의 심판에는 공소 시효가 없고, 끝까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심판을 반드시 사법적 처벌과 연관 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적 심판이 아무리 엄중하더라도 과거를 망각하는 한 불행한 역사는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 : 글썽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간단한 말해서, 역사의 심판이란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 심판을 내려서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아닌가요? 지난날의 과오를 심판한다고 할 때,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방법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에 대해 실제적인 응징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정의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남 : 역사의 심판을 위해서는 사법적인 처벌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사법적 처벌이 오히려 역사적 심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2차세계대전 중에 다른 민족에게 만행을 저질렀던 이들에 대해 사법적 처리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행에 동조했는데도 사법적 처리를 면한 사람들은 참회의 과정 없이 과거를 잊어갔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대한 사법적 처리가 나머지 사람들에게겐 일종의 면죄부가 된 셈이지요. 저는 진정한 역사의 심판은 처벌이 아니라 '드러냄', '드러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사실의 진상을 정확하게, 명명백백히 드러내고 진화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참회하고 반성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자, 진정한 의미의 역사적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5. [출제의도] 대담자의 태도 비교

두 대담자는 역사의 심판이 꼭 필요하다는 점과 이를 통해 정의를 바로 세우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대담자는 이를 위한 방법으로 사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남성 대담자는 사법적 처벌 대신에 역사적 사실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는 일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6.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의 평가

남자 대담자는 '역사의 심판이 바르게 이루어져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역사의 심판을 위해서는 사법적인 처벌이 꼭 필요하다.'는 여자 대담자의 주장을 간단히 정리한 후,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다.

7. [출제의도] 주제의 생성

왼쪽의 그림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의 행동을 비난함으로써 자녀의 반발을 사고 있는 반면, 오른쪽의 그림에서는 어머니가 자신의 감정을 있는 대로 진술하여 자녀 스스로 행동하도록 하고 있다.

8.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

성형 수술로 인해서 자신감을 찾았다는 사례를 찾아 보겠다고 한 ㉓은 외모 지상주의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는 글쓰기 계획으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9. [출제의도] 개요의 수정

원래의 개요에 있던 하위 항목들은 모두 상위 항목에 포괄되므로, 상위 항목에 포괄되지 않는 하위 항목을 수정하고자 한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㉒ 글의 구조가 '서론-본론-결론'으로 재조직되었다. ㉓ 제안은 자연재해에 비해 개념의 범위가 넓다.

10. [출제의도] 자료의 활용

㉓는 재해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를 비판하는 글의 자료로 활용되기에는 적절하지만, 예방 중심의 재해 방지 시스템을 촉구하는 이 글의 개요에서는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11. [출제의도] 조건에 따른 표현

㉓에서 도전하지 않는 '성공'이 '실패'라 하고, 포기하지 않는 '실패'가 '성공'이라고 한 것에서는 역설의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알 수 있고, 유사한 문장 형식이 짝지어진 데에서는 대구의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㉑은 그림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㉒는 역설적 깨달음이 표현되지 않았다.

12. [출제의도] 회고하기

<보기>의 글은 자신의 종이접기 활동을 소개한 다음 최고의 종이접기 작가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㉑의 문장은 글쓴이의 포부를 진술하는 문단의 일부에 해당하는데, 이 문단의 시작은 ㉑이 아니라, '훌륭한 종이접기 작가들'으로 시작하는 문장이다.

13. [출제의도] 어법의 이해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를 <보기>에서 제시한 설명에 따라 직접구성요소를 분석하면 두 가지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각각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의 구조와 ['게으른'과 '토끼와 거북이']의 구조인데, ㄷ의 문장에서는 이 중에서 전자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14. [출제의도] 어휘 의미의 파악

'언저리'는 '둘레의 가 부분'을, '가장자리'는 '둘레나 끝에 해당하는 부분'을, '테두리'는 '둘레의 가장자리'를 각각 의미한다. 모두 가장자리나 끝을 의미하는 '주변'의 의미 요소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5~19] 미셸 푸코, 「추상적 형식에서부터 재료의 심층까지」

15.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 파악하여 제목 붙이기

글쓴이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1문단의 첫 문장과 2문단의 첫 문장에 제시되어 있듯이 2세기 예술은 재료의 가치를 재평가했다는 것이다.

16. [출제의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기

3문단의 '의식적이고 인위적인 표현 행위를 최소화하면서 재료의 비정형성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스타일을 각인하려 했던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보기>의 작품에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적 표현을 위한 작가의 적극적인 노력 때문이 아니라, 작가가 의미를 부여한 재료의 비정형성 때문임을 알 수 있다.

17. [출제의도] 판단의 근거 평가하기

㉑은 20세기 이전의 예술가들도 재료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재료가 구성이나 표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다. ㉒의 경우, 대리석이라는 재료 안에 이미 어떤 형상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예술가가 그저 어분의 것만을 깎아내면 ㉒ 재료 안에 감춰진 본질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므로, ㉑의 근거로 적절하다.

18. [출제의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문맥으로 보아 ㉑은 '인위적이거나 의식적인 작용이 배제된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의미를 담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의식적이고 인위적인 표현 행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이게 하려 한다는 뜻이다. ㉒에서 '흔적'은 작품에 대한 비유이다. 즉, 작품을 마치 '모래 위에 남겨진 파도의 흔적'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의미가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19. [출제의도] 유사한 대상과 비교하기

<보기>의 경우 버려진 페타이어를 시적 화자로 설정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작가가 자신과 대비되는 소재를 선택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㉑의 경우에도 낡은 자동차의 라디에이터라는 소재가 작가 자신과 대비되는 소재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희박하다.

[20~24] ㉑ 김광규, 「크낙산의 마음」 ㉒ 정지용, 「장수산 1」 ㉓ 최두식, 「칠원평야」

20. [출제의도] 작품의 종합적 감상

㉑에서 화자는 '다시 태어날 수 없어 마음이 무거운' 것을 느낀다. 새로운 존재가 되고 싶으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㉒에서 화자는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한 산 속에서 '시름'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낀다. 마음 속 시름으로 괴로운 상태를 '흔들린'다고 표현한 것이다.

21. [출제의도] 화자의 심정 추리

'집'은 시적 화자가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탈일상'으로의 여정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이다. 그러나 시적 화자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크낙산'의 자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삶의 모태가 되는 공간은 집이 아니라 '크낙산'이다.

22. [출제의도] 이미지의 유사성 추론

장수산은 '눈과 밤이 종이보다 흰' 고결한 공간이다. 이러한 장수산에서 시적 화자는 '조잘히' 늙은 사나이의 삶을 담고 싶어 하며 차고 울런히 시름을 견디려고 한다. 이로 미루어 장수산은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고결한 정신을 상징하는 이미지이다. ㉑의 '겨울 산'도 침묵하며 추위를 견디는 높은 정신을 상징하는 이미지이다.

23. [출제의도] 감상의 적절성 평가

'세상에 하염없이 슬퍼질 때'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부영이가 밤새워 우는 풍경은 시적 화자의 슬픔이 투영된 것이다. 이를 시적 화자의 삶에 대한 무상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서는 작품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4.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

㉑은 후각적 이미지를 지닌 '냄새'를 '서늘하게'라고 하여 촉각적 이미지로, '피어오른다'고 하여 시각적 이미지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다. ㉒의 '내음새'(냄새)는 '조잘히 늙은 사나이'의 고결한 정신을 상징하는 시어이다. 화자가 지향하는 정신적 세계를 '내음새'라는 후각적 이미지로 바꿔 표현하고 있다.

[25~28] 이정전, 「합리적 개인 대 비합리적 사회」

25. [출제의도] 논지 전개 방식의 파악

넷째 문단은 첫째 문단과 셋째 문단에 소개된 경제학의 입장을 인정하더라도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둘째 문단에서 제기된 문제가 존재함을 들어 보다 보강된 주장을 제시하기 위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26.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평가

이 글에서 글쓴이는 개인의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모두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도덕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사회적으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글쓴이는 사회적 합리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27. [출제의도] 다른 상황에서의 적용

최수의 딜레마 이론을 지지하는 쪽[㉑]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사회적으로는 비합리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㉒]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협동과 같은 긍정적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들어 이를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보기>는 협동이 지니는 부정적인 측면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㉑는 협동도 보다 넓은 차원에서 보면 또 다른 비합리를 초래할 수 있음을 들어 ㉒를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28. [출제의도] 관용적 표현의 의미 이해

'제 눈에 물 대기'라는 속담은 자에게만 이롭게 일을 하는 경우에 쓰는 말이므로 ㉑의 상황과 부합한다.

[29~32] 강봉균, 「우리의 뇌는 과거를 어떻게 기억할까」

29. [출제의도] 정보의 개괄적 확인

이 글에는 기억 정보가 어떤 기준으로 뇌에 저장되고 안 되는지를 설명한 내용은 진술되어 있지 않다. 특히 비서술 정보의 경우 마지막 문단에서 그 유형에 따라 기억되는 부위가 다름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30.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A씨는 내측두엽을 절개하는 수술을 받았으므로 다른 부위는 손상을 입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편도체가 담당하는 감정이나 공포 등을 기억하는 일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다.

31. [출제의도] 새로운 정보의 추리

이 글에 따르면, 시냅스 붕괴로 전달된 신경전달물질은 시냅스 후 뉴런의 수용체를 자극해 전기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㉓는 이러한 과정을 역으로 일으키는 일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32. [출제의도] 추론의 과정 적용

㉑에 나타난 추론 방법은, 어떤 요인이 들어가느냐 없느냐에 따라 특정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추리하는 것이다. ㉒는 "그가 참석하지 않았다. +모임이 재미있었다. → 모임을 재미있게 만드는 데 그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추론 과정을 보므로 ㉑과 가장 유사하다.

[33~36]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33. [출제의도] 핵심 정보의 파악

지문에는 조사가 어떤 경우에 생략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기 때문에 ㉑과 같은 의문은 이 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다.

34. [출제의도] 세부 정보의 확인

격조사는 체언에 붙어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시하는 문법적 기능을 하며, 보조사는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시하는 구실 없이 의미만을 더해 주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35. [출제의도] 다른 상황에서의 적용

조사가 붙은 말은 자립형식이지만 어미가 붙은 말은 단독으로 문장 속에 나타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어미는 자립성이 없는 말에 붙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6.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의 제시

‘하고, 예, 랑, 이머’는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반면에 ‘마다’는 ‘날날이 모두’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37~41] 송기원, 「아름다운 얼굴」

37. [출제의도] 작품의 종합적 감상

이 글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은 주인공이 자기 힘으로 위악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이런 내용의 생생한 전달을 위해 1인칭 서술자가 자신의 청소년기의 삶을 회상하여 당시의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고백체 서술 형식을 취하고 있다.

38. [출제의도] 감상의 적절성 평가

<보기>의 관점은 학생들의 감상이 작가와 작품 자체의 미학을 이해하는 차이를 넘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관점을 적절하게 드러낸 것은 먼저 작품 속의 주인공의 굴곡진 삶을 이해하고 자신도 그런 스스로를 부정하는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닌지 반성하면서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점을 제시한 ㉠이다.

39. [출제의도] 다른 상황에서의 적용

<보기>는 인간의 유년시절 정신적 상처가 어떤 특정한 계기를 통해 의식 세계에 나타나고, 그 과정에 방이계기가 작동한다는 내용이다. 위 글의 주인공의 삶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한다면, 정신적 상처는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제시된 어린 시절 불우하고 고통스러운 환경과 ㉠의 ‘장물뱅이 부류’라는 것에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인공은 문학 동호회 회원들의 악의 없는 웃음에도 어린 시절 받았던 비웃음이 연상되어서, 그들에게 위악적 행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의 ‘위악’은 주인공의 정신적 상처가 의식 세계에 그대로 나타나지 못하게 가로막는 방어기제라고 볼 수 있다.

40. [출제의도] 대화의 특성 파악

(가)의 대화는 주인공의 위악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다. 주인공에게 호의를 느낀 여학생이 친근감을 드러내기 위해 다정한 어조로 질문을 하자, 주인공은 위악이 발동하여 화난 감정과 공격성을 실어 매몰한 어조로 대답하는 장면이다. 물론 이런 주인공의 태도를 상대방 여학생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41. [출제의도] 한자성어의 이해

‘가로세로’는 한자어로는 ‘縱橫(縱橫)’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가로세로 떠들다’의 뜻은 여러 가지 말을 두서없이 나열한다는 것이므로 정답은 ㉠의 조리가 없는 말을 함부로 지껄인다는 횡설수설(橫說亂說)이다.

[42~46] 에리히 프롬, 「자유로부터의 도피」

42. [출제의도] 집필 의도 추리

이 글에서 글쓴이는 근대 이후 신분제적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된 인간들이, 주어진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원인과 그 심리적 과정을 밝히고,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 자유를 추구하여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나머지 답지들은 이 글의 논지와 무관하거나 초점이 다른 진술 내용이므로 이 글의 논지를 정확하게 담아내지 못했다.

43. [출제의도] 사례의 적절성 판단

㉠은 자아를 포기하고 자기 이외의 어떤 존재에 종속되고자 하는 경향이다. 어떤 상황에 대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견해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은 자아의 독립을 포기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언론매체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신뢰하는 태도는 언론매체의 의견이 지니는 권위에 스스로 종속되는 것이다.

44. [출제의도] 정보간의 대비적 속성 비교

글쓴이는 1차적 속박을 근대 이전의 신분 질서에 의한 속박과 관련짓고 있으며, 근대 이전 사람들은 이 속박에서 나름대로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1차적 속박이 안정감과 소속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 ㉡는 틀린 설명이다.

45. [출제의도]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학교 아이들이 엄석대에게 복종하는 행위는 자아의 독립을 포기하고 자기 이외의 어떤 존재에 종속되고자 하는 양상에 해당한다. 이는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자유를 추구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양상이다. 학교 아이들의 복종행위가 사회적 신분 질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46. [출제의도] 어휘 사용의 적절성 판단

‘결부(結付)’는 ‘일정한 사물이나 현상을 서로 연관시킴’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그 일은 통일 문제와도 결부된다.’ 등과 같이 쓰인다. ㉢과 같이 나쁜 일을 위해 서로 한 통속이 되는 경우는 ‘결탁(結託)’이라는 단어가 적절하다.

[47~52] (가) 이태준, 「목죽과 신부」 (나) 윤선도, 「만홍」 (다) 박인로, 「누항사」

47. [출제의도] 작품들의 공통점 파악

(가)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칭덕’을 받들어 목화 한 폭으로 시집은 머느리와, 떨고 굶주리면서도 사랑과 체도를 헐지 않았던 정수동의 부인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존을 잃지 않고 의연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나)의 ‘나’는 ‘남’들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연 속에서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 (다)의 ‘나’는 ‘구북이 위무’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명’을 받아들이고 단사표음하는 삶에 자족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로 보아 세 작품에는 어려움에 당당히 맞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공통적으로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48. [출제의도] 해석의 적절성 평가

(나)에서 ‘보리밭 꽃나물’은 ‘산수’, ‘띠집’과 아울러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을 상징하는 시어로 볼 수 있다. 이는 ‘알맞추’ 먹는다는 구절, 실컷 노니는 ‘바위 끝 물가’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물질에 대한 작가의 절제와 자연에 대한 향유의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오답풀이] ㉠ (나)의 셋째 수에서는 ‘면 뉘’를 바라보는 즐거움을 ‘그리던 일이 오는’ 상황과 대비하고 있다. 사랑하는 임, 그것도 그리워하던 일이 오는 것보다 홀로 자연을 즐기는 것이 더 좋다고 한 까닭은 종장의 ‘말씀 웃음’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임’은 비록 ‘말씀도 웃음도’ 있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못한 것이다. 이를 <보기>와 연결하여 해석해 보면, 변신을 거듭하는 현실 정자와 그에 따라 표류하는 인간에 대한 반발 의식이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9. [출제의도] 세부 정보의 추리

(다)에서 ‘나’는 자신의 가난을 ‘명’으로 받아들이며, 이러한 자신의 삶에 ‘실은 뜻’은 없다고 하였다. ‘강호’에서의 단사표음을 자족하며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50. [출제의도] 감상의 적절성 평가

[A]에서는 정수동의 일화를 짧게 소개하고 그 부인과 어느 대강에 얽힌 이야기를 중심으로 서술한 후, 그 부인에 대한 작가의 평을 덧붙이고 있다. 이 부분에서 독자는 정수동 부인의 여유와 자존이 정수동과 관련이 있음을 읽어낼 수도 있다. 그러나 <보기>의 경우, 정수동에 대한 언급은 ‘곤궁한 삶에서도 행복’을 즐겼다는 내용밖에 없다. 정수동 부인의 이야기는 내외법과 관련되어 있어서 두 사람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A]에서 대강이 ‘내가 실수했구나’라고 말한 이유가 <보기>에는 ‘내외법을 잊고’라고 명시되어 있다.

51. [출제의도] 시상 전개 과정 파악

<보기>에 의하면 (나)의 [B]는 ‘기-서-결’의 시상 전개를 변용한 ‘긴장 조성-긴장 고조-긴장 해소’로 설명할 수 있다. 초장에 보이는 ‘나’의 행위는 하나의 문제 상황이 되어, 긴장을 조성한다. ‘나’의 행위와 그에 담겨 있는 ‘뜻’을 두고 ‘남’들이 웃음으로써 그 긴장은 고조된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를 ‘어리고 함양’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이 ‘분’에 맞다고 하여 ‘나’의 뜻과 행위를 포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긴장을 해소하고 있다. 이는 ‘나’ 그리고 ‘나’의 ‘뜻’과 그것을 모르는 ‘남’ 사이의 갈등을 ‘분수’를 들어 ‘나’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도 볼 수 있다.

52. [출제의도] 표현의 적절성 평가

문맥으로 보아 ㉠에는 정수동 집안의 곤궁함을 나타내는 구절이 있어야 한다. (다)의 ‘구북이 위무’할, ‘있으면 죽이오 없으면 굶음’ 등을 활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53~56] 작자 미상, 「백학선전(白鶴仙傳)」

53. [출제의도] 작품의 서사 구조 파악하기

이 글에는 남자 주인공 ‘유백로’가 다른 가문과의 결혼을 거부하고 공부에 매진하여 과거에 급제하는 사건과 여자 주인공 ‘조낭자’가 다른 가문과의 결혼을 거부하다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사건이 나란히 배치되었다. 이 두 사건은 인연을 맺은 남녀 주인공이 같은 시간대에 다른 공간에서 겪는 일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54. [출제의도] 말하기의 성격 및 의도 파악하기

‘유백로’가 부모에게 ㉠과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은 ‘조낭자’와 관련하여 ‘백학선’을 잃어버렸다고 해 보았자 부모에게 꾸중을 들을 것이 분명하고 또한 ‘조 낭자’와의 인연을 지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55. [출제의도] 등장 인물의 심정을 파악하여 적용하기

(가)에서 ‘조 낭자’는 임과 아름다운 인연을 맺어 그를 그리워하게 되었지만 현생에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 상황에서 ‘조 낭자’는 저승에 가더라도 임에 대한 마음을 변치 않겠다고 하고 있다.

56.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와 기능 파악하기

㉣에서 ‘백학선’을 ‘유백로’ 가문의 조정에서의 위상과 연결시킨 것은,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57~60] 현원복, 「인공 광합성과 색소 증감형 태양전지」

57. [출제의도] 주요 정보의 확인

실리콘 태양전지에 대해서는 그 주재료가 실리콘이라는 점과 실리콘을 가공하는 데 매우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다. 이 태양전지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58. [출제의도] 세부 정보의 확인

산화탄소를 광촉매로 이용한 태양전지를 개발하게 된 것은, 이전부터 흔히 쓰이던 실리콘이 가공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때문이었다. 또한, 색소 증감형 태양전지를 개발한 것은 산화탄탄이 400나노미터 이하의 파장을 갖는 태양빛만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에너지 변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59. [출제의도] 대상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확인

요오드는 태양전지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전해액의 주요 성분이지, 전기와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가 아니다.

60.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구별

㉠의 ‘만들어’는 ‘목적이나 기술 따위를 들어 사물을 이루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의 ‘만드는’의 경우에도 그 대상이 ‘핵심’으로서, ㉠과 동일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